

[1] 속미인곡 모의 평가 2회

반	번호

이름	
----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 더 ㉠각시 본 듯도 더이고  
턴상(天上) 옥경(白玉京)을 었디 야 니별(離別) 고,  
다 더 저든 날의 놀을 보라 가시 고  
어와 ㉡네여이고 내 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가마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  
나도 님을 미더 군 디 전혀 업서  
이 야 교 야 어 러이 구듯 디  
반기시 비치 네와 었디 다 신고  
누어 각 고 니러 안자 헤여 니  
내 몸의 지은 죄 뵈 티 혀시니  
하 히라 원망 며 사 이라 허물 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각 마오. 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얼굴이 편 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 야 디내시며  
츄일동천(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 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티 세시 가  
기나긴 밤의 은 었디 자시 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니  
오 도 거의로다 일이나 사 올라  
내 들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뵈 올라가니  
㉢구름은 니와 ㉣안개 므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 거든 천리(千里) 라보라  
하리 믈 의 가 ㉤ 길히나 보자 니  
㉥ 랍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 가고 뵈 만 걸럿 니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 더이고  
모첨(茅簷)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 야 갓 고  
오 며 리며 헤 며 바니니  
저근덧 녀진(力盡) 야 풋 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 야 의 님을 보니  
옥(玉)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 의 머근 말 슬 장 자 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 며  
정(情)을 못다 야 목이조차 뵈여 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은 었디 뉘던고

어와, 허 (虛事)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이야 니와 구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1 | 보기 | 는 위 글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천상 → 지상
㉡	산 → 물가
㉢	낮 → 밤
㉣	현실 → 꿈
㉤	이승 → 저승

- ① ㉠: 화자가 ‘님’과 이별하는 이유가 된다.
- ② ㉡: 화자가 심리적 변화를 겪는 계기이다.
- ③ ㉢: 화자의 상황이 더 절실하게 인식된다.
- ④ ㉣: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 화자의 소망이 간절한 것이 강조된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중심인물로서 시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처지를 ㉡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 ③ ㉡는 ㉠의 태도가 소극적임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는 ㉠에게 질문하여 답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는 ㉠의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

3 ㉢~㉦ 중, 시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 학

## 4 | 보기 | 를 참고하여 ㉠을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송강 정철이 50세 되던 1585년(선조 18년), 정치적 동지였던 율곡 이이가 죽었다. 이때 송강은 사간원과 사헌부로부터 당파를 만들어 나라를 그르치려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았고, 결국 전라남도 창평으로 낙향한다. 여기에서 정철은 4년여 동안 정치적 재기를 다지며 글을 썼다.

- ① 정치적 동지 율곡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
- ②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내용
- ③ 탄핵을 받고 유배된 자신을 질책하는 내용
- ④ 당파 때문에 발생한 혼란을 개탄하는 내용
- ⑤ 임금을 향한 영원한 충심을 다짐하는 내용

## 5 위 글과 | 보기 |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 만권 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무궁(無窮) 애라 이 등에 왕래 풍류(往來風流)를 널리 드슴 고  
- 이항, ‘도산십이곡’에서

- ① 위 글과 | 보기 | 모두 동일한 음보율이 사용되고 있다.
- ② 위 글과 | 보기 | 의 마지막 구절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③ 위 글과 | 보기 | 모두 자연물을 통해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위 글은 우리말 표현이, | 보기 | 는 한자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⑤ 위 글은 현실을 비극적으로, | 보기 | 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